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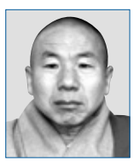
송광사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

순천 송광사 동당 법흥 스님은 11월 11일 송광사에서 열리는 제7회 금강산림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61)755-5306



정련스님 일맥문화대상 수상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은 일맥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제14회 일맥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1회 경산갓바위축제

경산 선본사 주지 향적 스님은 10월 28~29일 갓바위 공영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제11회 경산갓바위 축제를 개최한다. (053)804-7472



화엄사 2011화엄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10월 29일 화엄사 특설무대에서 2011화엄제 '기쁨마중'을 개최한다. (02)703-6599



보문사 환수 공로패

민을식 하동 보문사 신도회장은 10월 17일 4년 여에 걸친 보문사 소유권 보호 공적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권대자 포교사 대구예술상

권대자 포교사(정현사 대구문인협회 간사)는 10월 15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11대구예술상을 수상했다.

전통불교원 본부장 정안 스님

사무국장에는 광전 스님 임명



정안 스님



광전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0월 17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에 정안 스님을, 사무국장에 광전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 정안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각각 수지했다. 중앙승가대학교 총무처장, 대운암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아가타보원사 주지다.

신임 사무국장 광전 스님은 청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교육원 연수국장, 용궁사 주지, 국제선센터 국제국장을 역임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문화 보존 넘어 콘텐츠 생산을

은관문화훈장 받은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우리 전통문화는 후손들로 하여금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갖게 하고 풍부한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문화의 창달에 크게 일조할 것입니다."

한국의 출판과 문화, 문화재를 위해 일생을 헌신해 온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72 ·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겸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이 정부로부터 10월 15일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우리 문화와 문화재를 향한 그의 정열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등급별로는 故 박경리 박완서 백남준 작가 등이 추서 받은 금관문화훈장과 생존한 문화예술계 인사에 수여하는 최고의 훈장으로 알려진 은관문화훈장, 보관문화훈장, 옥관문화훈장, 화관문화훈장이 있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70%가 넘는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 지정된 문화재는 많지 않다. 미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계승은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말했다.

김 명예회장은 "민족문화는 우리 민족의 DNA에 저장돼 온 것이다. 불교문화유산에는 170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 예가 팔만대장경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1년은 초조대장경 1000년의 해이기도 하지만, 김종규 명예회장이 설립한 삼성출판사가 6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김 명예회장은 이런 기념비적인 세월의 흐름 외에 숫자 3000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1년 전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200여 회원을 1년 안에 1000명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그 수가 2000명을 넘어 3000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향한 그의 열정은 임권택 감독 등 유명인은 물론이고 무라야마 도미이치 前 일본 총리와 피에르 쿠뢰 '앙드레말로 국제친선협회' 회장 등 외국인까지 가입시켰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 관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는 을사늑약의 현장인 덕수궁 중명전,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가 된 전남 보성의 보성여관, 서울 통인동 이상 시인의 옛 집터 등 셀 수 없이 많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TV드라마 '선덕여왕'을 예로 들며, "드라마 한 편이 역사적 사실 외에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복식 연구 등 다방면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별도로 이를 통한 콘텐츠 생산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명예회장은 "최근 미국 유럽 등서 활동 중인 한국스님들 덕분에 한국불교에 대한 서구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며 "이것이 혜초 의상 원효가 꿈꿨던 모습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계도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공심(公心)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다. 자신이 박물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소장품으로 갖고 있던 문화유산을 대중과 함께 향유하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을 더했다.

김종규 명예회장은 "문화유산들은 선조들이 릴레이식으로 이뤄온 것"이라며 " (문화와 문화재 사랑에) 완결이란 있을 수 없다. 후임자에게 바톤 터치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02)732-7524 문화유산국민신탁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김의정 회장, 옥관문화훈장

10월 15일 2011문화의 날 맞아 수상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2011년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옥관훈장을 수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광부)는 10월 15일 강릉 임영관 관아에서 '2111년 문화의 날'을 맞아 문화예술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서훈했다.

문광부는 김의정 회장에 대해 '해외반출문화재 환수사업 및 전통문화보급 등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같은 훈장을 수훈했다.

김의정 회장은 지난 30여 년간 한국다도의 진흥과 세계화를 비롯해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사업, 국내외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화사업 및 봉사활동, 전통문화 보급과 인재양성 등 한국의 문화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김의정 회장의 이번 문화훈장은 모친인 故 명원 김미희 선생이 2000년 5월 '차의 날'을 맞아 보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은 데 이어, 11년 만에 모녀가 2대에 걸쳐 문화훈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김의정 회장은 이번 훈장 수훈에 대해 "우리 민족문화이 고유정신을 계승하고 민족문화 수호와 창달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10년 젊어진 진흥원, 반드시 달라진다

만장일치 추대된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제13대 이사장



"젊은 발상과 진취적 행보 위해 진흥원이 먼저 대중에게 마음의 문과 귀를 열겠다."

대한불교진흥원의 김규칠 신임 이사장(사진)의 일갈이다. 김 이사장은 10월 14일 대한불교진흥원 제142차 이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10월 20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추대 소감과 계획 등을 밝혔다.

김규칠 이사장은 "진흥원 이사장이 영광된 자리라기보다 불교문화 창달이라는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추대 소감을 대신했다.

김 이사장은 "진흥원 변화는 이사회의 의지 · 주문에 따라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신의 선출을 비롯해 새로 이사로 영입한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구상진 서울시립대 교수만 봐도 이사회가 10년은 젊어졌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김규칠 이사장은 "젊은 세대로 이사진이 교체되고 있는 것은 발상을 젊게 하고, 진취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젊은 발상과 진취적 행보를 위해 과거 진흥원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되 불교와 문화를 새롭게 접목시키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규칠 이사장의 새로운 시도는 '문화를 통한 불교포교'와 '불교를 통한 문화창달'이 둘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김 이사장은 "현대는 통섭과 융합의 시대이다. 통섭과 융합에는 불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사장을 비롯한 새 이사진 선출 과정을 비롯해 대원상 선정 등 진흥원의 의사결정 과정이 폐쇄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어느 재단이든 이사 공모를 않는다. 심사과정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잡음이 많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검토 후 필요하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BBS불교방송 설립 · 운영, 사찰환경 개선 사업, 군불교, 대학생불교 등 불교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전방위적으로 도움을 줘 왔다. 그러나 BBS불교방송만 봐도 지원금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김규칠 이사장은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개선점은 있겠으나 이는 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닌 불교계 전체의 문제이다.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내건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BBS불교방송의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주고 노력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신임 이채원 사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이사장은 "영담 스님과는 이제 관계가 개선됐다"며 "BBS불교방송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BBS이사장 영담 스님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칠 이사장은 "진흥원의 설립취지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사장의 첫째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진흥원을 설립한 장경호 거사의 뜻을 원칙으로 두되 사업과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점차 진취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양용은 불교홍보 나선다

템플스테이 홍보대사에 위촉



'바람의 아들' 프로골퍼 양용은(사진)이 템플스테이 홍보대사에 위촉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은 양용은 선수를 템플스테이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아시아 남자선수 최초로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 선수는 스포츠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어 이번 템플스테이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문화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단은 "치열한 우승 경쟁 속에 있는 스포츠선수들의 집중력과 평온한 마음가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를 위해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양용은 선수는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동행의 홍보대사로도 활동한 바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봉인사 Templestay

가피명상

상담이 있는 명상

상(相)상(想)템플

내(內)적 효과

★ 현재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음
★ 억눌렸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됨
★ 복잡한 생각들과 지속되는 마음의 재잘거림으로부터 벗어남
★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릴 수 있음
★ 해결해야 하는 일의 순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음
★ 평온, 고요함, 행복과 환희를 경험
★ 지금의 현실에서 만족감을 찾아 느낄 수 있음
★ 대인관계가 원활해 짐을 경험할 수 있음

외(外)적 효과

★ 상황자체는 그대로이지만, 관점이 바뀌어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게 됨
★ 상황자체에 변화가 일어나 모든 관계에서 균형,조화,성공을 이루게됨

	가피명상	상상템플
참가비	50만원	9만원
일 시	매월 넷째주 화요일(5박 6일)	매주 토요일(1박 2일)
장 소	봉인사 (경남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2리 304번지)	
대 상	자신의 성찰 및 성장에 관심있는 모든 분	
접 수	www.bonginsanet / 031)574-5585	
입금계좌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 봉인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하시 수행센터

우 수완나 사야도의
위빠사나(통찰) 집중수행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스님께서는 여러분들께 위빠사나(통찰) 명상을 기초부터 철저하게...
그리고 수행 전, 수행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명확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차근 차근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U Suvanna 사야도께서는 Mahasi 큰스님의 지침하에 위빠사나 용맹정진 course 수행을 하셨으며, Mahasi 센터에서 가장 존경받는 큰 스님들로부터 Mahasi 국제명상지도 큰스님으로 선정되신 분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위빠사나 수행을 가르치시고자 한국으로 오셨으며 봉인사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위빠사나 수행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수행일정

♣ 일 시 : 2011년 11월 23일 – 11월 27일
♣ 장 소 : 봉인사 www.bonginsa.net
♣ 동 참 금 : 1박에 3만원(12만원) / 스님 만원
♣ 입금계좌 : 농협 355-0000-5973-03
♣ 준 비 물 : 개인세면도구, 개인컵, 필기도구, 편안한 복장

미얀마 파욱 센터의 수행방법 지도

구니카 스님 초청 집중 수행

파-욱 수행센터는 미얀마에서도 가장 큰 수행센터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법을 그대로 실천하는 곳입니다.
캐나다, 미국,페루 등 사마타 위빠사나 명상 지도 중이신 **'구니카 스님'**을 특별 초청하여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9일 – 15일까지 6박 7일간** 부처님께서 수행사하고 가르치셨던 정통수행법인 사마타(지)와 위빠사나(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구니카 스님'은 직접 체험하신 수행을 바탕으로 하여 자상하고 상세한 수행지도와, 빨리어 경전의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는 훌륭한 법문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수행일정 **2011년 11월 9일 ~ 11월 15일**
신 청 전화접수, 문의 : 031)574-5585 www.bonginsa.net
참 가 비 스님 1일 2만원 / 재가자 1일 4만원
입 금 처 농협 355-0000-5973-03 예금주 : 봉인사
장 소 봉인사 한길정진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2리 304번지